

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특혜 폐지

□ 우즈벡 정부,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특혜 폐지

- 우즈벡 정부는 최근 현재까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부여했던 각종 세제혜택을 2006년 6. 1.을 기해 폐지한다고 발표
 - 이러한 특혜는 대부분이 미국과의 금광개발 합작투자법인인 Newmont, 스위스 식품업체인 Nestle 등에 주로 적용되어 왔음
- 우즈벡 정부가 이러한 투자건별로 시한을 정하여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결의를 채택함으로써 6. 1.부터는 일반기업 관련 법률이 외국투자기업에게 그대로 적용되게 됨
 - 이를 계기로 우즈벡 정부내에 특별 전담반이 구성되어 외국 투자기업들의 투자프로젝트별로 부여될 특혜종류 및 범위,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됨
- 외국투자기업이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프로젝트가 소재한 지방정부로부터 우선투자 프로젝트로 인정받아야 하는 바, 이는 주로 원유 및 가스 개발 등에 부여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음

(자료제공 : 우즈벡 주재원)

문의: 전문연구원 유재형(☎02-3779-6655)

E-mail : yoojay@koreaexim.go.kr